

『本草綱目』이 『廣濟秘笈』에 미친 영향 분석 - 「鄉藥單方治驗」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오재근¹ · 윤창열¹ *

A Study on 『Compendium of Matria Medica(本草綱目)』's Influence to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廣濟秘笈)』 -Focused on Experience by Simple Formulae using Korean herbs-

Oh Chae-kun¹ · Yoon chang-yeol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 was compiled by Lee Gyeonghwa(李景華, 1721-?) in Choseon Dynasty. Experience by Simple Formulae using Korean herbs in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 was recorded Hangul name[鄉名], main medicinal effect and how to use etc. of 50 Korean herbs[鄉藥] to give aid to country people who didn't have medical knowledge.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 have pas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s selecting 50 Korean herbs and recording Hangul name. Though most of Experience by Simple Formulae using Korean herbs[鄉藥單方治驗] was quoted 『Compendium of Matria Medica』, it reflected developing of Korean traditional herb science[本草學] as selecting herbs, arranging frequent symptoms, changing main effect of herbs, and adding clinical experiences.

Key Words :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廣濟秘笈), Experience by Simple Formulae using Korean herbs(鄉藥單方治驗), Compendium of Matria Medica(本草綱目), Lee Gyeonghwa, Korean herbs(鄉藥)

I. 서론

조선의 본초학 연구 성과는 조선의 재래 본초, 즉 鄉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鄉藥集成方』, 중기의 『東醫寶鑑』 「湯液篇」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 저작으로 후대의 본초 연구는 이를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다.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서는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 여러 임상 의서 중에 藥性歌가 기재되어 본초의 활용도를 높였지만 반대로 본초 관련 전문 이론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790년에 편찬된 『廣濟秘笈』은 조선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간행된 임상 의서이면서도 조선 의서로는 드물게 鄉藥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三木榮 등에 의해 주목받아 왔다¹⁾. 또한 그 내용이 『本草綱目』의 조선 도래 이후의 성과를 담고 있어 『本草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yoony@dj.ac.kr Tel : 042) 280-2601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35.

綱目』이 조선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서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발표된 『廣濟秘笈』 관련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김두중(1981)²⁾, 三木榮(1973)³⁾, 이성우(1981)⁴⁾, 김신근(1987)⁵⁾에서 『廣濟秘笈』과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이성우(1981)는 소장 및 서지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고, 김신근(1987)은 서문, 범례, 발문을 기재하고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외에 차용석(1997)⁶⁾은 『廣濟秘笈』의 저자와 관련된 논란을 분석하고, 관련 문헌 및 기재 향약 등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차용석(1997)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廣濟秘笈』 저자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시하며 『本草綱目』과 『廣濟秘笈』 간의 본문 비교를 통해 당대에 이미 조선에 수입되었던 중국의 본초 서적 『本草綱目』이 조선의 본초학 발전에 끼친 영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廣濟秘笈』의 저자와 편찬배경

『廣濟秘笈』은 1790년(정조 14)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이병모(李秉模, 1742-1806)⁷⁾가 기근과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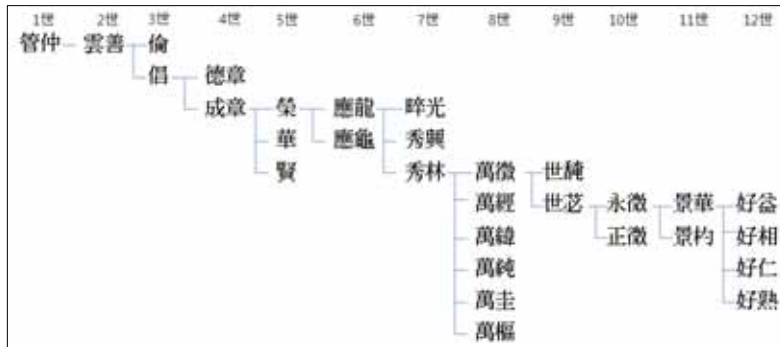
토병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巫俗을 신되하고 醫藥을 믿지 않아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자 進士 李景華에게 救濟之方을 저술할 것을 의뢰하고 자신의 봉록을 털어 간행된 사찬 의서 중 하나로⁸⁾ 민간에서의 구급 및 검색 편의를 목적으로 편찬되었다⁹⁾.

저자인 이경화(李景華)와 관련하여서는 비슷한 시대에 동명이인 李景華(1629-1706, 號 楓溪, 振威人)가 있어 기존에 다소 논란이 있어왔으나 『廣濟秘笈』의 편찬 년대가 1790년인 것과 『廣濟秘笈』「序」에서 李秉模가 李景華를 지칭하여 ‘공은 비록 늙었으나¹⁰⁾’라고 한 것, 그리고 李景華가 지은 『廣濟秘笈』「跋」에

배되고, 1781년에는 사판(仕版)에서 제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特敍되어 국조보감찬집당상·우부승지·동래부사·대사간 등을 거쳤고경상도관찰사로 제임 중인 1784년에 『敦孝錄』을 간행하였다. 이어 대사성·이조참판·예조판서·형조판서·호조판서·병조판서·예문관제학·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 등을 거쳐 1794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좌의정을 거쳐 1799년 영의정이 되었다. 1778년 冬至副使, 1795년 進賀使 등으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1800년에도 冊封奏請使로 使行 중에 정조의 상을 당하였다. 순조가 즉위하자 실록총제관에 임명되고, 1803년(순조 3)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시호는 文翼이다.”

- 8)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3. “歲己酉, 余出按關北, 其地, 右海左嶺, 嵐瘴交觸, 民多疾病, 其俗, 信巫而不信藥, 日事祈禳, 無救於死亡, 甚可哀也... 余乃捐俸助工, 以付剗剛, 廣布一路, 尚亦有補於周洪二公之遺訣也歟.”
-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歲庚戌, 靜修李公, 觀察北關, 適值荐飢, 減價糶糶, 盡心接濟之暇, 更念北俗質質, 藥不知洩瀉, 針不解砭石, 天枉札瘥, 往往有之, 閱而憐之, 召致余子舍, 要輯救濟之方, 以爲廣布計, 其仁人愛物之心, 足以感神明而及豚魚矣.” 이하 『廣濟秘笈』 관련 내용은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구두점은 이경화 저. 廣濟秘笈. 서울, 계축문화사(영인본). 1990에 따라 기재한다.
- 9)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p.30-31. “一是書, 以五中, 諸厥, 五絕, 五發, 爲首者, 專是救急之意也... 一凡醫書, 編秩浩繁, 方文汗漫, 非平日熟讀者, 臨急檢方, 多有未及之歎, 孫氏, 千金方序云, 方才檢得, 病已不救, 徵其言, 分類立方, 易於考閱云.”
- 10)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4. “方今, 聖明光御, 萬物咸覩, 無一夫不被澤, 無一藝不見錄, 翁雖老矣, 吾知其必不能終於隱也.”

-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p.358-359.
- 3)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134-136.
- 4)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서울, 향문사. 1981. p.490.
- 5)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428-434.
- 6) 차용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 의사회지. 1997. 10(2). pp.93-113.
- 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인물상세정보:이병모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index.jsp> “이병모(李秉模, 1742-1806)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 字는 彝則, 號는 靜修齋이고, 端夏의 현손이며, 演의 아들이다. 1773년(영조 49)진사시를 거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당시 영의정 韓翼謨의 주청으로 6품에 올랐다. 경기 지방·관동지방을 암행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金尙魯의 죄를 탄핵하였다. 이조좌랑·대사간·예조참의를 거쳐 이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1779년(정조 3) 운산에 유



* 『金浦李氏世譜』(1977) 참조

그림 1. 李景華 가계도

서 스스로 ‘의업에 종사한지 50여년이 되었다¹¹⁾’라고 한 것 등을 비교해 보면 그 출생 년대와 저술 당시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므로 『廣濟秘笈』의 저자는 李景華(1629-1706)가 아닌 金浦李氏(시조 : 李管仲) 11세손 李景華(1721-?, 字 元亮)로 여겨진다¹²⁾.

李景華의 출신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金浦李氏의

세거지가 평안도 성천(成川)으로¹³⁾ 李景華 자신의 묘도 成川郡 三德面 大同里 平地山에 위치하여 있고¹⁴⁾, 영조 50년 甲午 式年試 生員進士試 司馬榜目の 인적사항에 거주지를 成川으로 기재하고 있으며¹⁵⁾, 「跋」에서 자신이 西土 출신임을 한탄하고 있고¹⁶⁾, 윤봉조(尹鳳朝, 1680-1761, 字 鳴叔, 號 圃巖)가 그를 위해 지었던 시 중에 ‘成都의 隱者에게

11)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一意蒼扁, 于今五十有餘年.”

12) 『廣濟秘笈』의 저자인 李景華와 宋時烈的 문인이자 『楓溪集』의 저자인 李景華(1629-1706, 號 楓溪, 振威人)는 동명이인으로 혼동되어 기재되어왔다. 『廣濟秘笈』의 편찬 년도가 1790년인 것을 감안하면 李景華(1628-1706)가 저자가 될 수 없음을 자명하다. 『金浦李氏世譜』(1931)에서는 “字元亮, 成均進士, 崇靈殿參奉兼望同知, 墓在中郎良坐, 配羅氏籍羅州, 墓在岩浦金剛洞, 後池氏籍.”이라고 하여 별다른 기재가 보이지 않지만 『金浦李氏世譜』(1977)와 김신근(1988) 편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해제 중에서는 모두 위 두 사람을 한 사람인 것처럼 생물년대 및 관련 업적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역시 李景華(1628-1706)가 학자이자 의학자라고 하여 그 혼란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래 표에서는 김신근(1988)이 이야기한 李景華(1628-1706)와 『廣濟秘笈』의 저자로 추정되는 李景華(1628-1706)의 司馬榜目 중 내용을 기재하여 비교한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index.jsp>). 『廣濟秘笈』의 저자 분별과 관련해서는 차웅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7. 10(2). pp.98-99. 참조.

구분	이경화(李景華)	이경화(李景華)
생원진사시	英祖 50년(1774) 甲午式年試 生員 三等 15위	顯宗 1년(1660) 庚子式年試 生員 三等 21위
인적사항	생년	辛丑(1721)
	합격연령	54
	본관	金浦
거주지	成川	沃川
	전력	參奉
이력사항	과목	一疑
		幼學

13) 족보이야기. 성씨의 종류와 유래:김포이씨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www.rootsinfo.co.kr/index_sub04.html

14) 이선철 편. 金浦李氏世譜. 대전. 회상사. 1977. p.53.

1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인물상세정보:이경화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index.jsp>

16)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走少也, 誦短文, 搆小策, 以求出身之計, 既又自歎曰先輩, 文不過郵丞, 武不過執戟, 假使決科, 生於西土, 澤民利物, 非可望也.” 西土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시대에는 황해도, 평안도를 통칭하여 西道라고 불렀다.

병 치료를 맡겨보겠다¹⁷⁾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신지는 平安道 成川으로 추측된다.

그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 역시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廣濟秘笈』 「跋」에서는 李景華 스스로 어려서 입신에 뜻을 두었지만 출생의 한계에 좌절하여¹⁸⁾ 과거를 포기하고 의학 공부로 전향하여 50년간 의업을 행해오면서 매일 10여명의 환자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고¹⁹⁾, 『廣濟秘笈』 「序」에서는 李秉模가 그를 평하여 스스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의사로 불리우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꾸준히 의업을 행하여 온 의원임을 알 수 있다²⁰⁾. 하지만 스스로 范仲淹과 朱震亨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고²¹⁾, 당대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李秉模에게서는 經史百家를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으며²²⁾,

1774년(영조 50)에는 甲午 式年試 生員進士試에 합격하여 자신을 進士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평범한 의가라기보다 儒醫로 불리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³⁾.

2. 『廣濟秘笈』의 구성과 「鄉藥單方治驗」

『廣濟秘笈』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諸中」, 「諸厥」, 「五絶」, 「七竅」, 「五發」, 「癰疽」, 「諸傷」, 「咽喉」, 2권은 「雜病」, 3권은 「婦人門」, 「孕婦雜病」, 「産後諸病」, 「雜病」, 「小兒門」, 「痘疹」, 그리고 4권은 「鄉藥單方治驗」으로 이루어져 있다. 凡例에 따르면 「五中」, 「諸厥」, 「五絶」, 「五發」을 제일 앞에 둔 것은 救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고²⁴⁾ 본문 중에서 처방을 찾아보기 쉽게 분류하고 있는 것 역시 급병에 봉착하였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으로²⁵⁾ 본서의 편찬 의도가 다름 아닌 구급 및 일상 활용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편찬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4권의 「鄉藥單方治驗」이다. 「鄉藥單方治驗」은 人蔘, 當歸, 黃栢, 大豆, 小豆, 馬齒莧, 香附子, 大黃, 絲瓜, 冬瓜, 蕨靈仙, 忍冬, 石菖蒲, 蒲黃, 浮萍, 牡鼠屎, 頭垢, 人尿, 人尿, 食鹽, 香油, 生薑, 蔥白, 大蒜, 苦蔘, 百草霜, 艾, 鼠粘子, 蒼茸, 菟麻子, 白礬, 荊芥, 蛇床子, 紫蘇葉, 杏仁, 桃仁, 井華水, 白沸湯, 黃土, 地龍屎, 伏龍肝, 硫黃, 麻子, 亂髮, 竹瀝, 田螺, 梁上塵, 皂角, 葦菜^{付葦}, 白芷 50종 약물의 鄉名, 主治, 服用法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²⁶⁾, 凡例에서 ‘두메 산

17) 민족문화추진회 편. 尹鳳朝 著.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93 중 圃巖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1997. p.223. “戲贈成都李醫景華. 肘後神方欲問誰, 成都隱者隱於醫, 可能試手除吾疾, 吾疾平生在白癡.”
위의 시 일부가 『廣濟秘笈』 「序」 중에 기재되어 있다. 成都在 현재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金浦李氏의 세거지가 成川인 것과 司馬榜目에 거주지를 成川으로 적은 점 그리고 북한 번역본에서 成都를 ‘성진’으로 풀이하고 있어(노용갑 편. 이경화 저.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9) 지금의 ‘平安道 成川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走少也, 誦短文, 搆小策, 以求出身之計, 既又自歎曰先輩, 文不過郵丞, 武不過執戟, 假使決科, 生於西土, 澤民利物, 非可望也.”

19)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施自一鄉, 播及遠方, 聲聞之過, 固所恥之而問者, 雖一日十輩, 不避勞苦, 殫竭酬應者, 蓋欲不負初心也.”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一意蒼扁, 于今五十有餘年.”

20)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p.3-4. “蒼顏白髮, 雙瞳炯然, 未嘗以醫自處, 亦不避醫名.”

21)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3. “遂棄舉子業, 體范公, 願爲之心學丹溪猶仕之訓, 一意蒼扁, 于今五十有餘年.”

22)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p.3-4. “蒼顏白髮, 雙瞳炯然, 未嘗以醫自處, 亦不避醫名, 經史百家, 無不研究, 尤

致意於山河關防, 道里險夷忠臣烈婦, 綱常大節, 著志立傳, 以見其意, 蓋無所展其才而托醫爲隱者也.”

23)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534. “聖上十四年歲庚戌季夏進士李景華跋.” 儒醫 의학과 관련하여서는 성호준, 윤창열. 儒醫 의학의 사상적 특성.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07. 16(2). 참조.

24)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p.30-31. “一是書, 以五中, 諸厥, 五絶, 五發, 爲首者, 專是救急之意也.”

25)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31. “一凡醫書, 編秩浩繁, 方文汗漫, 非平日熟讀者, 臨急檢方, 多有未及之歎, 孫氏, 千金方序云, 方才檢得, 病已不救, 徵其言, 分類立方, 易於考閱云.”

26) 『廣濟秘笈』 권4 「鄉藥單方治驗」의 목관본의 목록에서는 총 49종의 약물명이 기재되어 있어 범례의 내용과 일치

구분	목록
卷之一	諸中 諸厥 五絕 七竅 五發 癰疽 諸傷 咽喉
卷之二	雜病
卷之三	婦人門 小兒門
卷之四	鄉藥單方治驗

표 1. 『廣濟秘笈』의 구성

끝에는 구급약이 없으므로 집집마다 보통으로 구하기 쉬운 약재 49종을 취해 언문으로 풀이하고 主治와 복용법을 낱낱이 서술하여 농촌에 사는 지식 없는 사람이라도 병에 따라 쓰임을 판별하여 급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²⁷⁾라고 하여 그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표 3에서는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과 『東醫寶鑑』 「湯液篇」에 기재된 본초의 향약명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이 당시 조선 자생의 鄉藥을 위주로 편찬되어 있으며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湯液篇」 등을 통해 드러난 조선 鄉藥論의 연장선 상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廣濟秘笈』은 大豆를 ‘흰콩’이 아닌 ‘굴근콩’으로, 菖蒲와 浮萍을 ‘석창포’, ‘머구리밥’이 아닌 ‘돌밭취난창포’, ‘모식난부평’으로 기재하여 향약 활용의 접근도를 높이고 있고, 蓖麻子를 ‘아줏가리’가 아닌 ‘삼시’라고 기재하여²⁸⁾ 대상 향약이 다르게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東醫寶鑑』 「湯液篇」의 편찬을 통해 정점에 달한 鄉藥의 활용이²⁹⁾ 조선 후기에 들어 전문 의가

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조선 일반 민중들에 의해서도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³⁰⁾.

3. 인용서로서의 『本草綱目』

『廣濟秘笈』은 「引據諸書」에서 총 71종(중국 의서 63, 조선의서 8종)의 의서를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전문 본초 저작으로 불릴 수 있는 것으로는 『食療本草』, 『四聲本草』, 『備用本草』, 『日用本草』, 『人蔘傳』, 『本草綱目』 등이 있다. 그 중 『本草綱目』은 인용 횟수가 4권을 제외한 1, 2, 3권만으로도 119회에 이를 정도로 전권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으며³¹⁾ 내용에 있어서도 ‘見綱目’과 같은 일반적인 표식 이외에 ‘見綱目何首烏³²⁾’, ‘只穀治諸積法, 在綱目只穀註³³⁾’ 식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적 내용을 담고 있어 『東醫寶鑑』과 『壽世保元』과 함께 『廣濟秘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의서로 꼽히고 있다³⁴⁾.

『本草綱目』의 『廣濟秘笈』에 대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4권 「鄉藥單方治驗」이다. 「鄉藥單方治驗」은 범례에서 밝힌 것과 같이 『本草綱目』과 『

하나 목관본 본문 중에는 ‘白芷’가 추가되어 있어 50종 약물로 보아야 한다.

27)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31. “窮鄉僻邑, 無藥救急, 考閱綱目本草, 及保元諸方, 以人家尋常易得之料, 四十九種, 書名諺釋, 主治服法, 井井畢俱, 使村人鄙夫, 臨病判用, 以爲備急之一助云.”

28) 『廣濟秘笈』에서는 蓖麻子의 향약명을 ‘삼시’라고 하고 있는 반면 『東醫寶鑑』 「湯液篇」에서는 蓖麻子의 향약명은 ‘아줏가리’, 麻子의 향약명은 ‘삼씨’라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東醫寶鑑』 「湯液篇」 「蓖麻子」 중에서는 “葉似大麻而極大其子形如牛蟬虫故以名之本草”라고 하고 麻子是大麻의 ‘부속 본초’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廣濟秘笈』에서 蓖麻子를 ‘삼시’라고 칭한 것이 오류인지 아니면 함경도나 평안도의 방언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2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7.

30) 『東醫寶鑑』 이후 鄉藥의 활용은 『山林經濟』, 『四醫經驗方』, 『聞見方』, 『及幼方』, 『本草精華』, 『良方金丹』, 『攷事撮要』 등에서 일정 정도 찾아볼 수 있다(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7.).

31) 차웅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997. 10(2). p.104.

32)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158.

33)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164.

34) 차웅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997. 10(2). p.108.

본초명	인용서적	본초명	인용서적	본초명	인용서적	본초명	인용서적
人參	『本草綱目』	蒲黃	『本草綱目』	艾	『本草綱目』	地龍尿	『本草綱目』
當歸		浮萍		白礬		伏龍肝	
黃柏		牡鼠尿		鼠粘子		硫黃	
大豆		頭垢		蒼茸		麻子	
小豆		人尿		蓖麻子		亂髮	
馬齒莧		人尿	荊芥	竹瀝			
香附子		食鹽	蛇狀子	田螺			
大黃		香油	紫蘇葉	樛上塵			
絲瓜		生薑	杏仁	皂角			
冬瓜		蔥白	桃仁	韭菜			
葳靈仙		大蒜	井華水	白芷			
忍冬		苦蔘	百沸湯				
菖蒲		百草霜	黃土				

표 2.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의 인용서적

壽世保元』 「單品雜治」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³⁵⁾ 50종 本草 중에서 『本草綱目』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大蒜’ 뿐으로 『廣濟秘笈』의 『本草綱目』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큼을 보여 준다.

4. 『本草綱目』의 인용 방식³⁶⁾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의 『本草綱目』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크며 『本草綱目』 중 「發明」, 「附方」 뿐 아니라 인용 서적 표기까지 그대로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³⁷⁾. 이하에서는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의 『本草綱目』 인용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廣濟秘笈』이 지니고 있는 독창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1) 본초의 구별

35)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31. “窮鄉僻邑, 無藥救急, 考閱綱目本草, 及保元諸方, 以人家尋常易得之料, 四十九種, 書名諺釋, 主治服法, 井井畢俱, 使村人鄙夫, 臨病判用, 以爲備急之一助云.”

36) 본 논문에서 활용한 『本草綱目』은 李時珍. 中國醫學大系 40-41 本草綱目. 서울. 도서출판정담(影印). 1982.이다.

37) 차용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의학학회지. 1997. 10(2). p.109.

먼저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에서는 본초명 아래 두 줄로 간략한 小註를 달아 본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표 4). 대부분 『本草綱目』 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廣濟秘笈』의 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추려 임상 활용에 적합하게 하고 있다.

2) 치험 내용의 취사 선택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本草綱目』 중 「附方」 관련 내용으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本草綱目』 「附方」은 네 글자로 主治를 기재하고 작은 글자로 구체 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을 취한다. 비록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 역시 『本草綱目』의 체례를 따라 ‘痘瘡不快’, ‘癰疽不斂’ 등의 네 글자 主治 기재 후에 다시 구체 사항을 기재하고 있지만 글자 크기를 변동시키지는 않고 主文과 동일한 크기로 기재하되 ○표로써 문단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은 대체로 『本草綱目』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문장을 생략하거나 다른 부분의 문장을 삽입시키는 등 치험 내용의 변경을 꾀한다. 예를 들어 ‘絲瓜’의 경우 『廣濟秘

본초명	廣濟秘笈	東醫寶鑑	본초명	廣濟秘笈	東醫寶鑑
人蔘	-	심	百草霜	안즌검다이	오란브억어귀엿검딤영
當歸	승암초	승엄초불휘	艾	-	스지발밖
黃柏	황경거플	황벽나무모겅질	白礬	-	빅번
大豆	굴근콩	흰콩	鼠粘子	윙씨	우윙씨
小豆	블근즌팟	블근팟	蒼茸	뵈고므이	둔고마리
馬齒莧	쇼비듬	쇠비름	蓖麻子	삼시	아줏가리
香附子	-	향부즈	荊芥	정기	덩가
大黃	장근플	장근플	蛇狀子	쥐손플	빅암도랏씨
絲瓜	슈웨외	수세외	紫蘇葉	-	츠초기
冬瓜	동화	동화	杏仁	-	슬고씨
葳靈仙	어알이불이	술위노물불휘	桃仁	-	복송화씨
忍冬	겨우사리플	겨우사리너출	井華水	-	새배처엄기른우물물
菖蒲	돌밭취난창표	석창포	百沸湯	-	덥게슬힌물
蒲黃	-	부들쫓맛르	黃土	-	조흔누른딜흙
浮萍	모시난부평	머구리밥	地龍尿	-	-
牡鼠尿	수쥐쫓	-	伏龍肝	오란집감맛밧 우호른자을과면불근흙덩이	오란손미티누른흙
頭垢	사름의머리썩	머리에썩	硫黃	-	석류황
人屎	사름의쫓	사름의므른쫓	麻子	-	삼씨, 열씨
人尿	사름의오즙	오즙	亂髮	머리썩슬운것	절로떠러딘머리털
食鹽	먹는소곰	소곰	竹瀝	-	-
香油	참기름	흰참매기름	田螺	-	우롱이
生薑	-	싱강	樛上塵	-	듬보우희들글
蔥白	-	과흰민	皂角	-	주엽나모여름
大蒜	큰만늘	마늘	韭菜	-	부취
苦蔘	쁜녕암	쁜너삼불휘	白芷	-	구릿댓불휘

표 3. 『東醫寶鑑』「湯液篇」과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의 향약명 비교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本草綱目』	
大豆	疑是黑大豆	大豆	集解 別錄曰, 大豆生太山平澤, 九月采之. 頰曰, 今處處種之, 有黑白二種, 入藥用黑者, 緊小者爲雌, 用之尤佳.
牡鼠尿	兩頭尖是	鼠	糞 弘景曰兩頭尖是牡鼠尿
人屎	一名野人乾 一人名人黃 一名黃龍湯	人屎	黃龍湯 弘景 還元水 蘇園記人中黃
百沸湯	百沸者佳 若半沸者 飲之反傷	熱湯	甘平無毒 時珍曰, 按汪穎云, 熱湯須百沸者佳. 若半沸者, 飲之反傷元氣, 作嘔.

표 4.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과 『本草綱目』의 본초 관련 설명 비교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本草綱目』
<p>痘瘡不快, 初出, 或未出, 多者令少, 少者令稀, 老絲瓜, 近蒂三寸, 連皮燒存性, 研末砂糖水, 服<small>直指</small> ○癰疽不斂, 瘡口太甚, 用絲瓜搗汁, 類沫之<small>同上</small> ○風熱顯腫, 絲瓜, 燒存性, 研末, 水調搽之<small>月軒</small> ○手足凍瘡, 老絲瓜, 燒存性, 和臘豬脂, 塗之<small>海上</small> (중략) ○下血危篤, 絲瓜一個, 燒存性, 槐花減半, 爲末, 每空心, 米飲服二錢<small>普濟</small> ○腦崩流汁, 鼻中時時流臭黃水, 腦痛, 名控腦砂, 有虫食腦一, 用絲瓜藤, 近根三五尺, 燒存性, 每服一錢, 溫酒下, 以愈爲度<small>正傳</small> ○酒痢使血, 腹痛, 或如魚腦五色者, 乾絲瓜, 一枚, 連皮燒研, 空心酒服, 二盞, 一方, 煨食之 (이하 생략)</p>	<p>痘瘡不快<small>初出或未出</small>, 多者令少, 少者令稀, 老絲瓜<small>近蒂三寸連皮燒存性</small>, 研末, 砂糖水服, 直指. 癰疽不斂<small>瘡口太深</small>, 用絲瓜搗汁類沫之, 直指方. 風熱肥腫<small>絲瓜燒存性</small>, 研末, 水調搽之. <small>嚴月軒方</small> 肺熱面瘡<small>苦絲瓜</small>, 牙皂菜并燒灰, 等分, 油調搽. 摘玄方. 玉莖瘡潰<small>絲瓜連子搗汁</small>, 和五倍子末, 類搽之. 丹溪方. 坐板瘡疥<small>絲瓜皮焙乾爲末</small>, 燒酒調搽之. 攝生衆妙方. 天泡濕瘡<small>絲瓜汁調辰粉</small>, 類搽之. 手足凍瘡<small>老絲瓜燒存性</small>, 和臘豬脂塗之. <small>海上方</small> (이하 생략)</p> <p>腦崩流汁<small>鼻中時時流臭黃水</small>, 腦痛, 名控腦砂, 有虫食腦中也. 用絲瓜藤<small>近根三五尺</small>, 燒存性, 每服一錢, 溫酒下, 以愈爲度. 醫學正傳.</p>

표 5.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과 『本草綱目』의 기재 비교 : 絲瓜

笈』『鄉藥單方治驗』에서는 ‘風熱顯腫’ 이후에 ‘手足凍瘡’이 바로 나오는 반면 『本草綱目』에서는 사이에 ‘肺熱面瘡’, ‘玉莖瘡潰’, ‘坐板瘡疥’, ‘天泡濕瘡’ 등의 문장이 존재하여 당대 조선의 함경도 지역 민간에서 빈발하던 질병의 양상을 취해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주석의 본문 처리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은 필요한 경우 『本草綱目』의 주석을 본문화시키기도 하는데 아래 표 6은 그와 관련된 예이다. 구체적으로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중에서 본문으로 등장하는 ‘李元淳尙書...’는 본래 『本草綱目』에서는 ‘蚰蜒入耳’의 실례로써 주석에 불과하였지만 李景華는 이를 문단을 나누어 본문으로 가져오고 있다. 아마도 실례로써 치료 방식과 효험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4) 다른 본초의 치험을 가지고 옴

50종의 본초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 있는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에서는 그 외 본초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와 본초 간 치험 내용 변경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의 표 5 중 ‘腦崩流汁’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本草綱目』 ‘絲瓜’가 아닌 ‘絲瓜藤’에 해당하는 主治 내용 입에도 불구하고 『廣濟秘笈』『鄉藥

單方治驗』에서는 ‘絲瓜治驗’ 중에 위치시키고 있어 ‘絲瓜’로써 ‘絲瓜藤’의 효험을 거두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표 7 중의 ‘菘麻子’ 조문에서도 역시 ‘腫毒初起, 菘麻子山藥糯米等分, 水浸研付即消普濟’의 문장이 『本草綱目』 ‘菘麻子’ 조문이 아닌 ‘薯蕷’ 조문에 실려 있으며, ‘菘菜’의 경우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菘菜治驗 뒷부분 “手指赤色, 隨月生死”부터 끝부분까지는 『本草綱目』 중에서 ‘菘菜’가 아닌 ‘菘白’에 속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廣濟秘笈』『引據諸書』 중 하나인 『東醫寶鑑』『湯液篇』에서 분명 ‘菘菜’는 ‘부척’, ‘菘菜’는 ‘염교’라고 하여 두 약재를 구별하고 있음에도³⁸⁾ 불구하고 ‘菘白’은 ‘菘白’으로 바꾸면서 또 ‘菘根’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전사 상의 오류라기 보다는 저자의 임상 경험을 통한 본초 활용 범위의 확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이 50종 본초만이 아니라 『本草綱目』 전체를 인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본초 안에 관련 내용을 집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신의 임상 경험 추가

이외에도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에서는 자신

38) 허준. 東醫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영인본). 1982. p.717.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本草綱目』
香油 ○蚰蜒入耳，用胡麻油，作煎餅枕臥，須臾自出 <small>傳信</small> ○李元淳尚書，在河陽日，蚰蜒入耳，無計可爲，腦悶，有聲至，以頭擊門柱，奏狀危困，因發御醫，療之不驗，忽有人，獻此方，乃愈 <small>圖經</small>	胡麻油 蚰蜒入耳 <small>劉禹錫傳信方，用油麻油作煎餅，枕臥，須臾自出。</small> 即香油 <small>李元淳尚書在河陽日，蚰蜒入耳，無計可爲，腦悶有聲，至以頭擊門柱，奏狀危困，因發御醫療之，不驗，忽有人獻此方，乃愈。圖經。</small>

표 6.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과 『本草綱目』의 기재 비교 : 香油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本草綱目』
菘麻子 ○腫毒初起，菘麻子山藥糯米等分，水浸研付即消 <small>普濟</small>	薯蕷 腫毒初起 <small>帶泥山藥，菘麻子，糯米等分，水浸研，敷之即散也。普濟方。</small>
菲菜 ○手指赤色，隨月生疔，以生菲，一把，苦酒，煮熱，搗爛塗之 <small>愈</small> <small>時後</small> ○毒蛇螫傷，菲白搗 <small>徐王</small> ○虎犬咬傷，菲白，搗汁飲之，并塗之，日三服 <small>葛洪</small> ○諸魚骨哽，菲白嚼柔，以繩繫中，吞到哽處，引之，即出 <small>同上</small> ○誤吞釵環，取菲白，曝萎煮熟，切食一大棗，釵即隨出 <small>同上</small> ○咽喉腫痛，菲根，醋搗 <small>傅腫處</small> ，冷即易之 <small>聖惠</small>	菲白 手指赤色 <small>隨月生疔，以生菲一把，苦酒煮熟，搗爛塗之，愈乃止。肘後方。疥瘡痛癢，煮菲葉，搗爛塗之，同上。</small> 灸瘡腫痛 <small>菲白一升，豬脂一斤，切，以苦酒浸一宿，微火煎三上三下，去滓塗之。梅師方。</small> 手足痲瘡 <small>生菲一把，以熱醋投入，以封瘡上取效。千金。</small> 毒蛇螫傷 <small>菲白搗敷。徐王方。</small> 虎犬咬傷 <small>菲白搗汁一升飲之，并塗之，日三服，瘡乃止。葛洪方。</small> 諸魚骨哽 <small>菲白嚼柔，以繩系中，吞到哽處，引之即出。同上。</small> 誤吞釵環 <small>取菲白曝萎，煮熟勿切，食一大棗，釵即隨出。葛洪方。</small> 目中風腫 <small>作痛，取菲白截斷，安膜上令通，痛作復爲之。範汪方。</small> 咽喉腫痛 <small>菲根醋搗敷腫處，冷即易之。聖濟。</small>

표 7.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과 『本草綱目』의 기재 비교 : 菘麻子和 薯蕷, 菲菜와 菲白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本草綱目』
百沸湯 ○蝎螫傷，溫湯漬之，數易，至且愈 <small>華佗</small> ○蛇繞不解，熱湯淋之，即脫 <small>千金</small> ○百沸湯，洗眼，和血明目。	熱湯 蝎螫傷 <small>溫湯漬之，數易，至且愈。華佗治彭城夫人方。</small> 蛇繞不解 <small>熱湯淋之，即脫。千金方。</small>

표 8.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과 『本草綱目』의 기재 비교 : 百沸湯

의 임상 경험을 추가하고 있다.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百沸湯의 끝 부분에는 표 8에서와 같이 “百沸湯，洗眼，和血明目.”이라는 문장이 존재하는데 본 문장은 『本草綱目』 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장이고, 문장 끝의 인용 문헌 표기도 누락되어 있어 아마도 李景華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재로 여겨진다.

III. 고찰

『廣濟秘笈』은 평안도 成川 출신의 이경화(李景華)에 의해 편찬된 조선 중후기의 의서로 「鄉藥單方治驗」을 통해 조선의 鄉藥論 전통 위에서 임상 본초학

적 성과를 정리해내고 있다. 주로 『本草綱目』, 『壽世保元』 등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추려내고 치험 내용을 변경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료 경험까지도 별도 기재하고 있다.

비록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이 『本草綱目』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저자의 의견이 그리 많지 않아 독창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비판 받을 수 있겠지만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50여개의 본초를 추리고 主治나 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점, 중국의 본초서인 『本草綱目』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한 점, 서민을 위해 편집되어 당대의 민간 의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점³⁹⁾, 끝으로 조선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사족에 의해서 편찬되었

다는 점 등은 높은 의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1. 『廣濟秘笈』은 1790년(정조 14) 이병모(李秉模, 1742-1806)에 의해 간행된 의서로 편찬자는 이경화(李景華, 1721-?)이고 그의 출신지는 평안도 성천(成川)으로 추정된다.

2. 『廣濟秘笈』 4권 「鄉藥單方治驗」은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 50종을 취해 한글로 향약명을 기재하고 主治와 복용법을 낱말로 서술하여 병에 따라 쓰임을 판별하고 급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3.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의 50종 향약의 선택과 향약명의 기재는 조선 전통의 향약의학 계승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廣濟秘笈』 「鄉藥單方治驗」은 외형상 『本草綱目』 중 「發明」, 「附方」 뿐 아니라 인용 서적 표기까지 그대로 가져와 『本草綱目』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지만 본초의 선택, 병증의 정리, 문장의 구성, 본초 치험 내용의 변경, 자신의 임상 경험 추가 등을 통해 『本草綱目』을 자신의 임상 경험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5. 조선 중후기에 편찬된 『廣濟秘笈』, 그 중 「鄉藥單方治驗」은 『本草綱目』의 유입과 그 영향을 통한 조선 본초학의 발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저작으로 여겨진다.

參考文獻

<논문>

3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35.

1. 차용석, 박찬국.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원전지사학회지. 1997. 10(2). p.104, 108, 109. pp.98-99.

<단행본>

1.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35. pp.134-136.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p.358-359.

3.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서울. 향문사. 1981. p.490.

4.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428-434.

5. 김신근 편. 이경화 저. 한국의학대계 16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p.3, 4, 30, 31, 158, 164, 533.

6. 이선철 편. 金浦李氏世譜. 대전. 회상사. 1977. p.53.

7. 이병수 편. 金浦李氏世譜. 평양. 대동인쇄사. 1931. 李.

8. 민족문화추진회 편. 尹鳳朝 저.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93 중 圃巖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1997. p.223.

9. 노용갑 편. 이경화 저. 廣濟秘笈.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9.

1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7.

11. 허준. 東醫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영인본). 1982. p.717.

<기타매체>

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인물상세정보.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index.jsp>

2. 족보이야기. 성씨의 종류와 유래.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www.rootsinfo.co.kr/index_sub04.html